

당뇨병성 말기신부전 혈액투석 환자에서 HbA1c를 이용한 모니터링은 여전히 유효한가?

서울의대

이 정 표

Blood Glucose Monitoring in Diabetic HD Patients: Is A1C Reliable?

Lee Jung Pyo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Medical Center

최근 당뇨병성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혈당조절의 목표로 당화혈색소(HbA1c) 7% 미만으로 유지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조기 만성콩팥병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근거로 제시된 권고안이다. 따라서 실제 투석중인 말기 신부전 등과 같이 진행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당뇨병 치료 목표에 관한 권고안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 외에도 일반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을 모니터링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HbA1c를 투석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적 검사 표준이 잡혀있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며, 검사 변동성이 적고 급성 스트레스 등에 따른 문제도 없고 그 동안 이를 이용한 많은 당뇨 연구들이 되어 있어 비교적 근거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기능 이상 시에 적혈구의 생존기간이 줄어들고, 철분공급과 수혈의 빈도가 많으며, EPO의 부족이나 공급 등으로 인한 적혈구의 생성 변화, 대사성 산증이나 혈액투석으로 인한 비타민 B12 등 수용성 비타민의 감소 등으로 혈색소 변화가 유발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대부분 측정된 HbA1c가 실제 환자의 혈당 상태를 저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혈액투석 환자에서 HbA1c를 이용한 평가법의 유용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한편, 최근 HbA1c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된 당화알부민(glycated albumin)을 비롯한 새로운 몇 가지의 혈당 지표들의 혈액 투석 환자에서의 유용성에 관해서도 최근 발표된 몇 개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